

서산시, 감자 신품종 지역적응 평가회 개최

금선·아리랑1호·골든볼·수지·하이칩 등 신품종 비교 재배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2일, 서산시 대산농협 대회의실에서 ‘감자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발작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재배 환경에 적합한 감자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존 주 재배 품종인 ‘수미’의 장기간 재배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품종 발굴과 보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금선 ▲골든볼 ▲아리랑1호 ▲수지 ▲하이칩 등 총 5개 신품종을 대상으로 지역 적응성과 재배 특성을 비교 평가했다.

평가회에는 감자공선회 회원과 감자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해 품종별 감자를 직접 확인하고

시식하며 맛, 식감, 외관, 상품성 등 품질 특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농가는 재배 과정에서 확인한 품종별 생육 특성, 수량성 등 현장 경험을

공유했으며, 신품종 재배 시 유의사항과 신품종의 지역 적응 가능성, 안정적 재배 기술, 향후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 감자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etimes.com



▲감자신품종지역적응평가회

과천시, 유리온실 오색 방울토마토 수확 체험 운영

관찰과 수학으로 먹거리의 소중함 배워

과천시는 도시농업센터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오색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어린이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7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작물을 관찰하고 수확하는 체험을 통해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7월 동안 주 2회씩 총 8회 운영

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11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접수 시작과 함께 전 회차가 마감됐으며, 지난 4월 딸기 수확체험에 참여했던 어린이집이 다시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체험에 활용되는 방울토마토는 지난 5월 유리온실에 심은 것으로, 빨강·주황·노랑·연두·흑색 등 다양한 색상의 품종으로 구성

돼 어린이들이 작물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봄에 진행한 딸기 및 셀러드채소 수확 체험에 이어 여름철 열매채소인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리온실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계절에 따라 다양한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 어린이들은 유리온실에서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작물의 생육 과정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또한 오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먹거리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아이들이 직접 작물을 관찰하고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2026년 품목별 교육 교육생 모집

재배기술·토양관리 등 실습 과정 운영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작목별 재배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목별 영농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5일(수)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중 총 7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 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참깨·들깨 △깨끗이 △유자 △약용작물 △토양관리 △농업기계 실습 △시금치 등 품목별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토양관리 과정에서는 토양 상태에 따른 관리 방법

과 시비·유기물 관리 등 농업의 기본기를 다루며, 농업기계 실습 과정은 안전교육을 병행해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7월 15일까지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화 접수 모두 가능하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달성군 참달성, 창립 20주년 ‘화합의 장’ 열어

‘연구회’에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달성군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대표하는 ‘참달성영농조합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참달성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일 비슬산 유스호스텔(아젤리아) 대연회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숙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06년 ‘참달성소품물연구회’로 시작한 법인은 2007년 법인 설립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8년 누적 매출 200억 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는 304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지난해 기준 5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참달성영농조합법인은 신세계물,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채널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물론, 가장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지역 내 하나마트(달성점, 성서점)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탄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김동원 대표는 “조합원들의 신뢰와 헌신 덕분에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통망을 더욱 확대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원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념식에서 “지난 20년은 참달성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증명한 온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온라인 유통망을 선점하고,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참달성이 디지털 농업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 유통망 구축과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우리 농특산물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아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달성군참달성창립20주년 조합원 한마음대회(최재훈 달성군수)

여주시, 지역특화 활력화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부속탐방·식물생리활성제 활용 연구성과 공유

여주시는 지난 7월 2일에 흥천면과 금사면 화훼 및 참외 농가 현장포장에서 농업인상당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지역특화 활력화사업 현장평가회를 개최하고 연구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평가회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정관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적용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첫 번째 현장평가회는 흥천면 효지리 화훼농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부속탐방을 활용한 분화용 상토 원료대체 검증’ 연구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금사면 이포리 참외농가에서는 ‘식물생리활성제 활용을

통한 참외 생육 및 품질개선 현장실증’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참외 생육상황과 품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농가의 현장 의견과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연구사업 추진 경

과와 실증 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농업인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현장평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사업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여주시, 농업인상당소 지역특화활력화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